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Market Insight
2026.5.21

Mirae Asset Research AI

본 조사분석자료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습니다. 본 자료 마지막에 안내된 중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수]
김주연
Jooyoun.kim@miraeasset.com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유가·금리 하락에 미국증시 1%대 반등

- 미국증시 주요 지수 일제 반등: 다우+1.31%, 러셀2000 +2.56%
- 트럼프 "이란 협상 최종 단계"..유가·금리·달러 일제 하락
- 엔비디아 강력한 실적에도 시간외 보합

Summary

미국증시 일제 반등

5월 20일(현지 시각) 미국 증시 3대 일제히 1% 이상의 강세로 거래를 마침. 이란과 미국의 종전 협상이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대한 기대를 키워 국제유가와 국채금리,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주가지수는 상승하는 흐름.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31%, 645 포인트 상승한 50,009.35로 거래를 마쳐 종가 기준 5만선을 회복했고, S&P500지수는 1.08% 상승해 7,432.97에 마감함.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55% 상승한 26,270.359에 마감해 2만 6천선을 회복. 중소형주 지수 러셀2000도 2.56% 강하게 상승해 2,800선을 회복함.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3.43% 하락한 17.44에 마감.

(다우 +1.31%, 나스닥 +1.55%, S&P500 +1.08%, 러셀2000 +2.56%)

트럼프 "이란 협상 최종단계"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서는 기대를 키웠다 다시 실망하기를 반복하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지만 시장은 다시 한 번 낙관에 무게를 실었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란과의 합의가 최종 단계에 있다"고 말했으며 백악관 취재진에게도 재차 "우리는 진짜 경계선 바로 위에 있다. 믿어도 된다"고 말함.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이란이 모두 서명할 종전 의향서를 중재국이 준비 중이라고 보도함. 앞서 사우디아라비아 매체도 종전 협상과 관련 파키스탄군 총사령관이 최종 합의문 초안 발표를 위해 내일 이란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으며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협상이 진행 중임을 확인함.

국제유가 하락..국채금리도 하락

미국과 이란의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며 국제유가가 급락했고 국채금리와 미국 달러 가치도 맞물려 하락. 특히 30년물 금리가 19년만에 최고를 기록하는 등 금융 시장 뇌관으로 작용할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날 국채금리는 전 기간물에서 하락해 우려를 일단 완화함. 유가 하락으로 인플레 상승에 대한 우려가 다소 수그러들었고 비인기물로 꼽히는 미 국채 20년물 입찰이 양호하게 마무리됐으며 앞서 일본과 영국에서도 채권 매도세

가 진정된 영향.

돋보인 반도체주 강세

유가 하락에 따른 에너지주 약세, 그리고 시장 내 Risk-On 분위기에 따른 방어적 성격의 필수소비재, 제약주 약세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업종군이 상승했던 하루. 특히 이날 마감 이후 실적 발표를 앞둔 엔비디아를 위시한 반도체주의 강세가 두드러져 시장 반등을 견인함. 전일 강보합게 마감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49% 급등세로 12,000선에 다시 근접.

FOMC 의사록, 금리 인상 가능성 경고

지난 4월 28~29일 진행됐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이 이날 공개.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 회의에서 연준 위원 다수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2%를 지속 웃돌 경우 일부 정책 긴축이 적절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으며, 대다수 참석자가 물가가 2% 목표 수준으로 복귀하는 데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위험이 커진 것으로 평가. 이는 연준 내에서 올 초까지 우세했단 금리 인하 분위기가 달라졌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실제 지난 회의 이후 주요 연준 인사 다수가 향후 금리 방향과 관련한 완화 편향을 시사하는 문구를 성명에서 삭제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음. 의사록은 중동 정세 악화와 국제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진단. 연준의 다음 FOMC 회의는 오는 6월 16~17일로 예정돼 있으며 이번 회의 이후 연준은 새로운 경제 전망(SEP)을 공개할 예정.

특징종목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반도체주 강세

최근 급등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반도체주는 장 마감 이후 엔비디아의 분기 실적 발표를 기다리는 가운데 국채 금리가 하락하자 일제히 반등.

인텔(+7.36%), 마이크론 테크놀로지(+4.76%), AMD(+8.10%), 엔비디아(+1.30%), 브로드컴(+1.63%), 마블 테크놀로지(+5.97%), 퀄컴(+3.53%), Ishares반도체 ETF(SOXX)(+4.74%), Vaneck 반도체 ETF(SMH)(+3.81%), Roundhill 메모리 ETF(DRAM)(+3.50%).

애널로그 디바이시스(-3.92%)는 시장 예상을 웃도는 전분기 실적에도 약세. 2분기 잉여현금흐름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AI 전력 관리 사업 확대를 위해 반도체 스타트업 엠파워 세미컨덕터를 약 15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 자금 부담을 주가가 반영한 것으로 풀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 후

한편 장 마감 이후 엔비디아(+1.30%)가 전분기(회계연도 기준 2027년 1분기/2~4월) 실적을 발표. 매출액은 1년 전에 비해 85% 급증한 816억 1,500만 달러를 기록해 시장 전망치 788억 6,000만 달러를 웃돌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 특히 데이터센터 사업 매출이 92% 증가한 752억 달러를 기록. 아마존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대규모 투자로 엔비디아 GPU 등 AI 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이 매출에 반영됨. 영업이익은 537억 8,300만 달러를 기록해 1년 사이 147% 급증했으며 조정 주당 순이익(EPS)은 1.87달러로 역시 시장 전망치 1.76달러를 상회. 나아가 회계연도 기준 2분기 매출 전망치는 891억 8,000만 달러~928억 2,000만 달러로 제시해 중간값 910억 달러로 예상치 874억 달러를 상회함. 이 가이던스는 중국 판매 매출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 매출 총이익률은 75%로 전년 대비 14.2%p 상승했지만 전분기보다는 0.1%p 하락함. 젠슨 황 CEO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인프라 확장인 AI 공장 구축이 엄청난 속도로 가속화하고 있다"고 평가.

엔비디아는 아울러 주주 환원 정책도 강화함. 자사주 매입 한도를 800억 달러 늘렸으며 분기 현금 배당금을 기존 0.01달러에서 0.25달러로 상향한다고 밝힘.

대체로 강력한 실적이었으나 매출 총이익률이 전분기 대비 감소한 점, 이미 높아질대로 높아진 고성장에 대한 기대를 뛰어넘을만한 실적과 가이던스는 아니었다는 점에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는 보합권에서 등락하는 가운데 약세권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기도. 다만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으로 주가 하단은 방어하는 모습.

이외 인텔과 마이크론 등의 반도체주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인프라 확장'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며 시간외 거래에서 강세.

소매유통주 실적 발표 후 약세

할인 유통 업체 TJX 컴퍼니, 홈 인테리어 건축 자재 유통업체 로스 컴퍼니스, 미국 대형 유통업체 타겟 등의 유통주 실적이 연이어 발표됨.

TJX(+5.66%)는 현재 진행 중인 분기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를 뛰어넘지 못했지만 전분기 실적이 예상을 웃돈 점에 긍정적으로 반응.

미국 홈 인테리어/건축자재 유통업체 로스(+1.23%)는 시장 예상치를 소폭 웃도는 분기 실적에 강세. 거시경제와 주택 시장 환경이 여전히 여러운 상황이라고 밝혀 투자심리가 장 중 위축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연간 가이던스를 일단 유지했다는 점에 안도.

타겟(-3.86%)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1분기 실적, 기존 전망 대비 상향 조정된 연간 매출 전망에도 하락.

엘프 뷰티(-4.27%)는 마감 이후 발표한 전분기 매출과 순이익이 시장 예상을 상회한 가운데 시간외 거래에서 강세. 회사는 휘발유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들을 위해 관세 관련 가격 인상분을 일부 철회할 계획이라고 밝힘.

소매업계 대장주 월마트(-2.50%)의 실적은 21일(현지시각) 발표될 예정.

이외 특징주

블룸 에너지(+8.02%)는 인공지능 인프라 제공 업체 네비우스(-2.99%)와 최대 26억 달러 규모의 연료 전기 용량 공급 계약을 체결했따고 밝히며 강세.

고급 주택 건설업체 톨 브라더스(+9.80%)는 시장 기대를 웃도는 분기 실적 발표 이후 강세. 최근 장기 금리 상승으로 인한 모기지 금리 상승에 주택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컸던 만큼 이날 국채금리가 하락한 것도 관련주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함. D.R호턴(+5.23%), 레나(+5.19%), 풀티 그룹(+4.69%), NVR(+3.76%) 등.

세금 계산서 작성 소프트웨어 '터보 택스' 제작사 인튜이트(-3.95%)가 전체 직원의 약 17%에 해당하는 약 3,000명을 감원할 예정이라는 로이터 보도 이후 약세. 인튜이트는 성장 동력이 약화하고 있어 구조조정을 단행한다고 밝힘. 한편 마감 이후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전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낙폭은 두자릿수대로 벌어짐. 이와 함께 이날 정규장에서 약세였던 워크데이(-2.11%), 데이터도그(-1.35%), 어도비(-0.64%) 등의 소프트웨어 기업 주가도 시간외 거래에서 추가 하락.

장난감 회사 해즈브로(-8.83%)는 연간 이익 전망치를 시장 예상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시해 크게 하락. 회사는 2026년 2분기부터 사이버 보안 침해와 관련한 비용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밝히기도.

유가 급락에 에너지 관련주는 약세. 엑슨 모빌(-3.86%), 셰브론(-3.00%), 옥시덴털 페트롤리엄(-3.01%), 코노코필립스(-2.20%), EOG 리소시스(-1.85%).

다만 유가 하락이 비용 부담 완화 기대로 이어져 여행/항공/크루즈 관련주는 강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9.99%), 델타 에어라인스(+9.39%), 아메리칸 에어라인스(+7.38%),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6.29%), 카니발(+8.96%), 노르웨이지언 크루즈 라인 홀딩스(+8.38%), 에어비앤비(+3.35%), 익스피디아 그룹(+1.20%), 메리어트 인터내셔널(+3.08%), 하얏트 호텔(+5.35%), 힐튼 월드와이드 홀딩스(+2.69%) 등.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국채 금리 큰 폭 하락

미 국채 금리가 크게 하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대한 시장 기대를 키우며 유가가 하락하자 이와 맞물린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과 함께 국채 금리도 하락. 아시아 시장에서 일본 국채 장기물 입찰이 호조를 보였으며 영국 국채 금리가 크게 하락한 것도 미 국채 금리 안정에 영향. 여기에 오후 들어 진행된 미국 20년물 국채 입찰에서 양호한 수요를 확인한 것도 금리 하락에 힘을 보탬.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8.70bp 하락한 4.038%를 기록했으며 10년물 국채 금리는 9.90bp 하락한 4.569%를 기록. 만기가 가장 긴 30년물 국채 금리도 6.60bp 하락해 5.115%를 기록.

4월 FOMC에서 연준 위원들 상당수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는 의사록 내용이 공개됐지만 금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음.

시카고 상품 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오는 12월까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전장 대비 높인 50% 수준으로 가격에 반영함. 연내 25bp 이상 금리 인상 가능성은 40% 후반대로 전장 대비 다소 낮아졌으며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1%대를 나타냄.

달러 가치 하락

미국 달러화 가치 역시 국제 유가 급락과 맞물려 약세.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99.109를 기록해 전장 대비 0.2% 하락. 미국과 이란의 합의가 임박했다는 사우디아라비아 매체의 보도에 하락 압력을 받기 시작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최종 단계에 있다고 말하고, 이란 외무부 대변인 역시 미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장 중 낙폭을 확대해 98.959선까지 밀리기도 했음. 다만 협상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신뢰를 갖기 힘들다는 일부 시각에 낙폭은 축소.

영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상승해 시장 전망치 3.0% 상승을 하회한 가운데 파운드-달러 환율은 0.278% 상승했고 유로-달러 환율도 0.2% 상승.

전일 주간 거래에서 1,506.80원에 마감한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10.00원 하락한 1,496.70원에 마감.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최근 1개월물 스와프포인트(-1.40원)을 고려하면 전장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종가 대비 9.20원 하락한 1,496.20원을 기록.

국제유가 이틀째 하락..WTI 100달러 하회

국제유가는 이틀 연속 하락.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며 낙폭도 확대. 뉴욕상업거새로에서 7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 대비 5.66% 하락한 배럴당 98.26달러에 거래를 마쳐 지난 11일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하회. 브렌트유 7월물도 5.63% 하락한 배럴당 105.02달러에 마감해 110달러를 하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란과의 협상과 관련, '최종 단계'에 있다고 밝혀. 그는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야 한다"며 "이번에 한 번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해. 이후 이란과 협상 추이에 대해 "정말 경계선 바로 위에 있다. 믿어도 좋다"고 실질적 협상 진전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높임.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미국과 이란이 모두 서명할 '의향서'를 중재국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고 보도.

이날 미 에너지 정보청(EIA)이 발표한 미국의 지난주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786만 3천 배럴 감소해 4주 연속 감소했으며 예상보다 감소 폭도 훨씬 컸음. 다만 이날 시장은 시장 내 재고 감소 이슈보다 공급 측 병목 해소에 대한 기대를 더 크게 반영.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달러도 약세를 보이며 금값은 5거래일만에 소폭 상승.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6월 인도분 금은 전장 대비 0.1% 상승한 온스당 4,535.30달러에 마감. 7월 인도분 은 선물 가격은 1.7% 가량 상승한 온스당 76달러 중반대에서 움직여 역시 5거래일만에 반등.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